

# 김석범 · 『화산도』 · 〈제주4·3〉\*

- 『화산도』의 역사적/문학사적 의미 -

김환기\*\*

## || 目次 ||

1. 들어가는 말
2. 김석범 문학의 고향-제주도, 그리고 『화산도』
3. 『화산도』의 역사문화/문학사적 위치와 의의
4.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광복 70주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국내외적으로 떠들썩한 2015년, 재일디아스포라 작가인 김석범의 『화산도』(김환기·김학동 번역, 『보고사』)가 우리말로 완역되어 출간되었다. 1965년 『화산도』가 문예동(재일조선문학예술가동맹)의 기관지인 『문학예술』에 발표되기 시작한 지 정확히 반세기만의 쾌거다. 그동안 소설은 『해소(海嘯)』에서 『화산도』로, 한글소설에서 일본어소설로, 조총련 문예지 『문학예술』에서 일본의 문예지 『文學界』로 소설 제목과 사용언어, 발표 매체를 바꿔가며 변신을 거듭했고, 최종적으로 일본어판 『火山島』(文芸春秋)를 거쳐 이번 한국어판 『火山島』가 간행되기까지 그야말로 간고한 디아스포라(Diaspora)의 여정을 걸어야 했다.

주지하다시피 소설 『火山島』의 서사구조는 해방정국에 휘몰아친 당대

---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3044781)

\*\*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의 정치이념, 역사문화, 사회 현장을 망라한다. 범박하게 그 내용을 짚어 보면, 시대적으로는 1948년 전후 해방정국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삼고, 공간적으로는 제주도-목포-광주-대전-서울-부산의 육로와 해로, 일본의 홋카이도(北海道)-도쿄(東京)-교토(京都)-오사카(大阪)-고베(神戸)를 잇는 한반도 바깥의 육로와 해로를 아우른다. 또한, 정치이념적으로는 한반도(특히 제주도)에서 반목했던 남북한 좌우익의 갈등/대립과 함께, <제주 4·3사건>을 둘러싼 군경-미군-무장대-제주도민 사이의 사상/무력충돌을 전면화하면서도, 유엔의 단독선거 결정과 남북분단, 이승만 정권의 등장과 함께 일제강점기 친일파 세력이 재기하는 사회현실만이 아니라 여수순천반란사건 등의 극한적 대립양상도 형상화된다. 뿐만 아니라 작품에서는 역사문화적으로 당대 한반도에 존속해온 봉건적인 가부장제, 해외 유학, 신세대의 결혼관/자유연애, 제주도의 생태학적 문화지리를 엮어내고 있다. 『화산도』는 해방정국의 정치경제의 현실을 부조(浮彫)해내는 차원을 넘어 사회역사, 민속종교, 통신교통, 의식주와 교육에 이르는, 당대의 정치역사성, 사회문화적 지점을 총체적으로 형상화한 걸작인 셈이다.

그런 까닭에 『火山島』의 역사적/문학사적 의미는 한두 마디로 축약될 만큼 단순하지가 않다. 역사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실증적 비평이나, 남북한/좌우익으로 반목했던 정치이데올로기의 평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생태학적 접근에 이르기까지 텍스트 읽기는 시좌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특히 한국문학/한국어문학계에 최초로 완역되어 소개된 『火山島』를 역사문화사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문학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김석범 문학의 고향-제주도, 그리고 『화산도』

제주도는 재일디아스포라 소설가 김석범의 ‘고향의식’과 “자아형성의 핵”으로서 작가로서의 운명을 결정짓는 공간이었다. 김석범은 해방을 전후해 ‘고향 제주도’ ‘관음사에서 한글 익히기’ ‘제주에서의 징병검사’ ‘제주 4·3사건’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견고한 민족주의적 시좌를 구축하였고, 재일소설가로서 제주도를 문학적 ‘고향’이자 작가로서의 정

신적 발원지로 인식하게 된다. 김석범은 『말의 주박(言葉の呪縛)』에서 제주도(<제주4·3사건>)에 대해 이렇게 밝힌 바 있다.

조선을 본 적도 없는 내 앞에 그 험준하고도 아름다운 한라산과 풍요로운 감 푸른(紺碧) 바다가 펼쳐지는 웅장한 자연의 자태와 박눌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제주도는 나를 완전히 압도해 버렸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황국’소년이었던 나의 내부세계를 부셔버리고 나를 근원적으로 바꿔버리는 계기가 될 정도의 힘을 가진 것이었다. 반년 정도 체류하고 일본으로 돌아온 나는 어느새 작은 민족주의자로서 눈떠가며 몇 차례 더 조선을 왕래하게 되지만, 그러한 나에게 ‘제주도’는 ‘조선인’의 자아형성의 핵을 이루는 것으로서 존재했다. 제주도는 그러한 의미에서 진정 나의 고향이며 조선 그 자체였다. (중략) 내가 그 고향을 한층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전후 그 섬을 습격하한 참극 때문이다. 섬 전체가 학살된 인간의 시체를 쪼아먹는 까마귀 떼가 날뛰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이유 때문이었다.<sup>1)</sup>

일제강점기인 1925년 10월에 오사카에서 태어나 1939년(14세) 처음 조국을 찾고 점차 반일사상과 조선독립을 생각하는 “작은 민족주의자”로 성장한 김석범은 1943년 제주도 숙모의 집과 관음사에서 한글을 익힌다. 1945년 제주도에서 징병검사를 거쳐 서울 선학원에서 장용석 등과 조선독립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해방 직후에는 일본생활을 청산함과 동시에 새로운 조국건설에 동참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작가는 1946년 국학전문학교 국문과에 장용석 등과 입학한 뒤 1개월 예정으로 일본으로 밀항한 후 44년간 조국을 찾지 못했지만, 해방을 전후해 몇 차례 오간 조국(제주도)은 그야말로 재일소설가로서의 ‘고향의식’과 ‘자아의식의 핵’을 구축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한다.

김석범은 1957년 8월 「간수 박서방」(『文芸首都』)과 12월 「까마귀의 죽음」(『文芸首都』)을 발표하면서 작가로서의 존재성을 알리게 된다. 그 후 「만덕유령기담」, 「장화」, 「밤」, 「사기꾼」, 「1945년 여름」, 「남겨진 기억」, 「왕생이문」, 『司祭없는 祭典』, 「유명의 초상」, 「가위 눌린 세월」, 『바다 속에서 땅 속에서』, 『만월』, 「허몽담」, 「도상」, 「유방 없는 여자」, 「작렬하는 어둠」, 「출발」, 「방황」, 「고향」 등을 발표하면서 재일소설가로서의

1) 金石範, 『言葉の呪縛』, 筑摩書房, 1972, pp.248~251.

입지를 굳힌다. 특히 장편서사 『火山島』는 김석범 문학이 제주도(<제주4·3사건>)와 운명적으로 함께 하고 있음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걸작이라고 할 수 있다.

『화산도』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문예동(재일조선문학예술가동맹)의 기관지 『문학예술』(1965년부터 1967년까지 9회, 제13호-제21호)에 한국어로 발표된 것이 처음이었다. 『문학예술』에 한국어로 발표된 『화산도』는 총3장이었고, 제1장은 1절부터 3절까지, 제2장은 1절부터 4절까지, 제3장은 1절부터 4절까지로 구성되었다. 그 내용은 게릴라인 장용석과 그의 여동생 장명순, 장용석의 옛 친구이자 신문사에 근무하는 김동진, 성내 조직책임자이자 국민학교 교사인 양성규, 미군정청 통역을 맡고 있는 비밀당원 정기준, 서북청년회 출신 경찰지서장인 황균위, 자본가 이병희와 그의 아들 이상근을 중심으로 1948년 <제주4·3사건>을 전후한 정치이데올로기 상황(주민대량학살의 예상, 미군정청의 부조리, 5·10선거, 친일파 문제 등)이 형상화 된다. 내용적인 면에서 1950년대 발표된 『까마귀의 죽음』과 닮은 점이 적지 않은데<sup>2)</sup>, 초창기 김석범 소설의 대부분이 제주도(<제주4·3사건>)를 적극적으로 서사화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火山島』는 『해소(海嘯)』라는 제목으로 1976년 문예지 『文學界』 2월호부터 1981년 8월까지 약 5년 반 동안 일본어로 연재된다. 1983년 『문예춘추(文芸春秋)』에서 간행된 『火山島』(전3권)는 『해소』의 내용을 엮은 것으로 일본문학계는 물론 한국문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고, 1988년 한국의 민주화투쟁이 정점을 찍은 직후 일본어판 『火山島』가 한국어로 번역 소개되기에 이른다.<sup>3)</sup> 그러나 『火山島』는 김석범 자신이

2) 나카무라 후쿠지(中村福治)는 김석범의 1950년대 작품 『까마귀의 죽음』과 1960년대 미완의 장편소설 『화산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등장인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나카무라 후쿠지, 『김석범 『화산도』 읽기』, 삼인, 2001, pp.53~55. 참조)

3) 1988년 김석범의 『火山島』는 실천문학사에서 김석희·이호철의 번역으로 전5권으로 번역되었고 당시 한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김석범이 “내용상(당시 일본에 있는 저자와 출판사 측의 연락이 자유롭지 못했던 탓) 불충분한 것들”이 있었고 “번역본이 원작과는 달리 일기체 형식으로 꾸며졌고, 작중의 중요한 대목들이 군데군데 생략되면서, 그 후에 완결된 『화산도』 제2부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지장을 주게 된다.”고 지적한 것처럼 불충분한 점이 있었다.(김석범 「한국어판 『화산도』 출간에 즈음하여」, 『화산도』(김환기·김학동 옮김), 보고서, 2015, pp.5~6)

“언젠가는 이 소설에 대응하는 형태로 속편에 해당하는 작품을 써야겠다.”<sup>4)</sup>고 예고했던 만큼,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1981년 문예지 『文學界』에 『해소』의 연재를 마치고 5년이 지난 1986년, 작가는 그 속편을 『文學界』 6월호에 연재하기 시작해 1996년 9월호까지 게재했고, 1997년 9월 『文藝春秋』에서 『火山島』(전7권 완간)을 출간함으로써 마침내 20여 년간 계속되었던 서사장편은 막을 내린다. 그리고 그로부터 18여년이 지난 2015년 10월, 마침내 일본어판 『火山島』(전7권)가 한국어로 완역(김환기 · 김학동 옮김)되어 <보고사>에서 『화산도』(전12권)로 출간되기에 이른다. 말하자면 1965년 처음으로 『火山島』가 문예동의 『문학예술』에 소개되기 시작해서 2015년 한국어판 『화산도』(전12권)가 출간되기까지 정확히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셈이다.<sup>5)</sup>

여기서 『화산도』의 전체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극히 개략적일 수밖에 없지만 『화산도』에서 형상화한 주요 주제들을 짚어보면, 먼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해방정국의 정치이데올로기(좌우익/남북이데올로기의 반목과 대립)를 비롯해서 권력기관의 움직임(미군 · 경찰 · 군인 · 서북청년회에 대한 협력/비협력, 배제/포섭), 미군정과 인민위원회의 움직임, 일제강점기의 친일과 문제(‘조선인’의 친일, 정부수립과 반민법/반민특위, 김구암살, 이승만정권의 부조리 등), 제주도 와 제주도민(역사 · 민속, 경제 · 지리, 사회 · 문화 전반), <제주4·3사건>(3·1절기념 행사, 4·3사건 발발, 4·28평화협상의 성립과 협상파괴, 토벌대와 무장대 간의 격심한 반목과 대립, 토벌대/무장대의 민간인 학살, 초토화 작전과 제9연대의 움직임, 오라리 방화사건, 5·3기습사건과 5·5수뇌회담, 김익렬 경질과 박경진 암살사건, 본격화된 토벌작전, <여수순천반란사건> 등), 유엔의 단독선거결정과 남북분단, 소련-북한-남로당의 움직임, 5·10총선거를 둘러싼 비리/부조리 등이 구체적으로 서사

4) 김석범, 「후기」, 『火山島5』(김석희 · 이호철 옮김), 실천문학사, 1988, p.315.

5) 『火山島』의 역사를 짚어보면, 1965년 조총련 기관지 문예동의 『문학예술』에 한국어로 『화산도』 게재(1965년부터 1967년까지)→일본어판 『해소』를 문예지 『文學界』에 게재(1976년부터 1981년까지)→1983년 일본어판 『火山島』(전3권)을 『문예춘추』에서 간행→1987년 『문예춘추』에서 간행된 『火山島』(전3권)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火山島』(전5권)로 간행→제2부 『火山島』를 문예지 『文學界』에 연재(1986년부터 1996년까지)→1997년 『火山島』(전7권, 文芸春秋) 출간→2015년 『文芸春秋』에서 출간된 『火山島』(전7권)이 한국어로 완역되어 『화산도』(전12권, 보고사)를 발간하게 된다.

화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산도』에는 1945년 해방정국에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역사성, 지역성, 정치성으로 표상되는 타자화 된 제주도/제주도민의 정서(상실감, 황폐함, 울분과 한), 제주도와 재일 ‘조선인’의 연계성, 제주도와 육지의 연계성, 봉건적인 가부장제와 가족제도(유산상속, 종손과 친족회의, 제사와 양자, 중매와 결혼, 세대간의 갈등과 화해, 일본유학 등), 자유연애와 결혼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문학적 천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설적 주제/문제의식을 보여준 김석범의 『화산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국적을 초월해서 여러 형태로 전개되어 왔는데, 개략적으로 그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에서는 나카무라 후쿠지(中村福治) 『金石範と「火山島」』(同時代社, 2001), 다케다 세이지(竹田青嗣) 『<在日>という根拠-李恢成・金石範・金鶴泳』(国文社, 1983), 쓰부라야 신고(圓谷真護) 『光の鏡-金石範の世界』(論創社, 2005), 오노 데이지로(小野悌次郎) 『存在の原基, 金石範文学』(新幹社, 1998), 『金石範文学』(新幹社, 1998) 등의 단행본을 확인할 수 있고, 논문·비평으로는 오은영(吳恩英) 『在日朝鮮人文学における「朝鮮的なもの」-金石範の作品を中心に-』(名古屋大学院博士学位論文, 2012), 오토베 무네노리(乙部宗徳) 「在日朝鮮人文学が突きつけるもの-金石範・李恢成の文学に即して」(『時代の転換点と文学』, 日本民主主義文学会編, 2004), 오노 데이지로(小野悌次郎) 「金石範文学へのアプローチ-「鴉の死から」」(『新日本文学』, 1977.10), 쓰부라야 신고(圓谷真護) 『荒野に立って神を呼ばず-金石範『火山島』について』(『アジアの中の日本文学』(千年紀文学の会, 1998), 김시중(金時鐘) 「金石範의 長編小説『火山島』의 完結に寄せて」(『毎日新聞』1997.12.11.), 아베 아키라·우에다 미요지·와다 요시에(阿部昭·上田三四二·和田芳恵) 「讀書鼎談 水上勉『寺泊』, 金石範『遺された記憶』」(『文芸』, 河出書房新社, 1977.4), 이즈미 세이이치(泉靖一) 「金石範著「鴉の死」」(『世界』, 1968.4), 고토 메이세이(後藤明生) 「日本語との戦いということ金石範『万徳幽霊奇譚』」(『文芸』, 1972.2), 나미키 유(並木友) 「四・三事件と小説「火山島(上)」」(『現代コリア』, 1990.11), 후루이 요시키치·사카가미 히로시(古井由吉·坂上弘) 「対談時評-青木八束「蛇いちごの周囲」, 김석범(金石範) 「李訓長」, 다카하시 다카코

(高橋たかこ) 「失われた絵」(『文学界』、文芸春秋社, 1973.7)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연구 단행본으로서 나카무라 후쿠지의 『김석범 『화산도』 읽기』(삼인, 2001), 오은영 『조선적인 것-김석범 문학을 중심으로』(선인, 2015) 등이 있고, 연구 논문으로는 김학동 『민족문학으로서의 재일조선 인문학-김사랑·김달수·김석범을 중심으로』(충남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환기 「김석범 문학과 <제주4·3사건>」(『문학과 의식』 73, 세계한민족 작가연합, 2008여름), 「재일 4·3문학의 문학사적 위치와 의의」(『日本學報』 제69집, 한국일본학회, 2006), 정대성 「작가 김석범의 인생역정, 작품세계, 사상과 행동」(『한일민족문제연구』 제9호, 한일민족문제학회, 2005) 「김석범 문학을 읽는 다양한 시각-그 역사적 단계와 사회적 배경-」(『日本學報』 제66집, 한국일본학회, 2006), 박미선 「김석범 문학의 4·3 대응방법연구-단편소설의 인물형상화를 중심으로-」(『비교문화연구』 제5집, 비교문화연구소, 2001), 김은아 「金石範의 「까마귀의 죽음」과 현기영의 「순이삼촌」에 나타난 ‘4·3’기억의 재현과 비교」(『국제한인문학연구』 제3호, 국제한인문학회, 2006), 오은영 「김석범 문학과 그 정치적 배경」(『일본문화학보』 제43집, 일본문화학회, 2009), 나카무라 후쿠지 「재일조선인 문학에 있어서 김석범 문학의 위치」(『龍鳳論叢』, 전남대인문과학연구소, 2000)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김석범 문학에 관한 실질적인 연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결코 광범위한 시점에서 전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굳이 언급하자면 일본문학/비평계의 집중적인 관심에 비해 한국에서의 관심은 매우 부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일본 나고야(名古屋)대학 대학원, 도쿄(東京)대학 대학원, 히도쓰바시(一橋)대학 대학원 등에서 신진연구자들이 끊임없이 김석범 문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재일코리안 학자/비평가들의 관심도 늘고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한편 『火山島』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는 “정치적·교조적인 해석이 대부분”<sup>6)</sup>이었고 더욱이 일본의 사소설과의 연계 속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실은 “해방정국의 정치경제의 현실만 담아냈다는

6) 김석범 「한국어판 『화산도』 출간에 즈음하여」, 『화산도』 1(김환기·김학동 옮김), 보고사, 2015, p.6.

선입견을 정정할<sup>7)</sup>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정치이념적으로는 “한반도(특히 제주도)에서 반목했던 남북한/좌우익의 갈등/대립과 함께, <제주4·3사건>을 둘러싼 군경-미군-무장대-제주도민 사이의 사상/무력충돌을 전면화하면서도, 유엔의 단독선거 결정과 남북분단, 이승만 정권의 등장과 함께 일제강점기 친일파 세력이 재기하는 사회현실만이 아니라 여수순천반란 사건 등의 극한적 대립양상<sup>8)</sup>을 형상화 하면서도, 역사문화적으로 “당대 한반도에 존속해온 봉건적인 가부장제, 경제자본, 해외유학, 신세대의 결혼관/자유연애 등등, 해방 직후 제주도의 생태학적 문화지리를 깊이 있게 부조해 내고”<sup>9)</sup>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아무튼 최근 한국문학/비평계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문학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특히 재일코리안 문학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석범 문학에 대한 조명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는 무엇보다도 일본어판 『火山島』가 한국어로 완역되어 소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엄청난 분량의 『火山島』를 한국어로 번역출간하기 위해서는 번역자/출판사의 각고의 희생은 물론이고 수준 높은 사회문화적 풍토가 뒷받침되어야 할 터인데, 오늘날 경제와 시장성을 중시하는 출판문화 풍토에서 창작이든 번역이든 대작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최근 한국의 서점가에 일본작가의 소설이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한쪽에선 표절시비로 어수선한 가운데, 재일디아스포라 작가의 놀랄만한 대하소설 『火山島』(전12권)가 완역 소개되는 것은 획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3. 『화산도』의 역사문화/문학사적 위치와 의의

김석범의 『火山島』가 한국에서 갖는 역사문화사적/문학사적 의미는 어떻게 자리매김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고민해보면 다양한

7) 김환기 「평화를 위한 진혼곡」(김석범 『화산도』 12), p.373.

8) 위의 글, 「평화를 위한 진혼곡」(『화산도』 12), p.373.

9) 위의 글, 「평화를 위한 진혼곡」(『화산도』 12), p.373.



역사/사회/문화/문학적 의미들을 상정하게 된다. 특히 한국근현대사와 불가분의 문학과 정치, 문학과 역사, 문학과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기억의 역사’의 존재양식, 디아스포라의 ‘축제성’으로 표상되는 역동성, 글로컬리즘(Glocalism)의 창의성과 연계된 아이덴티티 등이 거론되기 마련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김석범의 『火山島』는 한국에서의 역사문화/ 문학사적 의미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火山島』가 한국현대문학사에서 격동기 해방정국을 형상화한 장편서사로서 한국현대문학사의 공백을 채워주는 텍스트라는 점이다. 한국의 현대문학은 일제강점기와 조국해방, 한국전쟁과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제국과 포스트콜로니얼, 냉전과 탈냉전, 근대와 탈근대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생산해왔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대하소설만 거명해 보아도 식민지 시기에는 이광수의 『무정』에서 발원하여 염상섭의 『삼대』와 채만식의 『탁류』, 홍명희의 『임꺽정』으로 이어졌고, 해방 이후에는 안수길의 『북간도』와 박경리의 『토지』, 황석영의 『장길산』, 홍성원의 『남과 북』, 이병주의 『지리산』, 이문열의 『변경』, 김원일의 『불의 제전』, 조정래의 『태백산맥』 · 『아리랑』 · 『한강』 근현대사 3부작 등을 거론할 수 있다.<sup>10)</sup> 이 빛나는 역사장편대하의 성좌에 김석범의 『화산도』 또한 마땅

10) 한국의 대표적인 장편소설을 거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박태원(월북작가)의 『갑오농민전쟁』(전8권, 깊은샘, 1977-86)은 1977년 1부, 1980년 2부, 1986년 박태원 사후 3부가 발표된다. 내용은 갑오농민전쟁을 다루고 있다. 김주영의 『객주』(전9권, 문이당, 1979-82)는 1979년부터 1982년까지 서울신문에 연재된 소설로서 보부상들의 삶과 애환을 다룬 작품이다. 홍성원의 『남과 북』(전6권, 문학과 지성사, 1970-75)은 1970년부터 1975년까지 5년에 걸쳐 연재된 소설로서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전쟁기를 다룬 대표적인 전쟁문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기영(월북작가)의 『두만강』(전7권, 풀빛, 1954-61)은 1954년 1부, 1957년 2부, 1961년 3부가 발표되었는데, 충청도 천안 부근의 농촌을 무대로 19세기 말부터 1930년대까지 의병운동, 민족해방운동 등을 다룬 작품이다. 홍명희의 『임꺽정』(전10권, 사계절, 1928-40)은 1928년부터 1940년까지 연재한 소설로서 민족적인 정서를 토대로 우리나라 풍속을 잘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다. 황석영의 『장길산』(전10권, 현암사, 1976-84)은 1974년부터 1984년까지 한국일보에 연재했던 소설로서 17세기 숙종 광대출신 의적 장길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병주의 『지리산』(전7권, 한길사, 1972-85)은 1972년부터 1977년까지 연재한 소설로서 1938년부터 1956년까지를 배경으로 한 대하역사소설이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전10권, 해냄, 1986-89)은 1983년부터 1989년까지 『현대문학』과 『한국문학』에 연재한 소설이며 『아리랑』, 『한강』과 더불어 한국근현대사를 다룬 3부작 중의 하나이다. 박경리의 『토지』(전16권, 숲, 1993-94)는 1969년 1부가 연재되기 시작해 1994년까지 총5부로 완결된 대하역사소설로서 시대적 배경은 1897년부터 1945년 광복까지이며 한 가족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히 포함된다. 억압-배제-포섭으로 굴절된 사회문화적 지점을 장편/단편 소설로 서사화 한 작품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김석범의 대하소설 『화산도』는 이러한 소설적 성과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서사화가 용이하지 않은 격동기 해방정국의 정치이데올로기 상황(미군정, 이승만 정권, 남북분단 등)과 굴절된 제주도(<제주4·3사건>)의 사회문화 지점을 거대한 이야기의 세계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속문주의를 넘어서 글로벌시대의 문학정신을 감안할 때 해방 직후 정치이데올로기 정국을 서사화해낸 『화산도』의 역사적, 문학사적 의미는 한 두 마디 헌사로 마감해서는 안된다.

다음으로 디아스포라 작가가 창작한 일본어소설 『화산도』는 정치·이념적 터부의 대상일 수 없고 우리들의 자화상이자 거울이라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격동기 한국근현대사를 탈냉전과 포스트콜로니얼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탈 구축하려는 움직임은 꾸준히 있어왔고 그 성과 또한 적지 않다. 해방정국의 격심한 좌우익/남북이데올로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공고해진 군사정권의 반공이데올로기가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일단락되기까지 한국현대문학은 그야말로 억압과 배제, 포장과 민낯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혀 지난하게 부침해 왔다. 다양성/중층성으로 대변되는 글로벌 세계주의를 표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역사적 사실(진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김석범의 『火山島』는 그러한 국가와 민족중심의 역사성, 정치성, 사회성으로 표상되는 사회문화적 지점을 가장 적극적으로 구현해낸 소설적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은 격동기 해방정국의 제주도(<제주4.3사건>)를 둘러싼 정치·이념적 상황을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적시하고 “혼돈스러운 패러다임적 교란의 생기(生氣)”<sup>11)</sup>로 표현되는 디아스포라의 ‘축제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화산도』는 제주문학의 꽃이며 <4·3문학>의 정점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 알려진 대로, 제주4·3문학은 제주도 출신 작가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문예잡지 『제주작가』와 제주문인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 소설, 수필, 평론, 시조 등이 소개되었다. 대표적인

11) 황운현, 「遍歴과 回歸」, 『열대문화』(제7호), 열대문화 동인회, 1990, p.56.

소설가로는 고시홍, 곽학송, 김관후, 김대현, 김석희, 김일우, 김종원, 김창집, 노순자, 박화성, 오성찬, 이석범, 이재홍, 전현규, 정순희, 한림화, 함승보, 현기영, 현길언, 허윤석, 황순원 등이 있다.<sup>12)</sup> 이들 중에서도 “현기영은 「순이 삼촌」, 「거룩한 생애」, 「목마른 신들」, 「마지막 테우리」, 「지상의 손가락 하나」 등을 통해 제주 4·3문학을 본격화시킨 대표적인 작가이다. 현길언, 고시홍, 오성찬 또한 4·3사건의 진상을 고발하는 한편, 민중의 항쟁과 수난사를 문학화하며 4·3문학을 자리매김<sup>13)</sup>하는데 크게 기여한 작가들이다.

그러나 김석범의 소설은 국내외에 발표된 4·3문학 중에서도 높은 문학성을 자랑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우선 4·3문학 중에서 『화산도』는 유일한 장편 대하소설이고 내용상 <제주4·3사건>을 객관적으로 조명하면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육지와 바닷길로 소통하는 동아시아적 시좌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물론 김석범의 『화산도』는 ‘재일 4·3문학’, 즉 재일코리안 작가들이 제주도(<제주4·3사건>)를 서사화한 작품들<sup>14)</sup> 중에서도 그 중심에 놓인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화산도』가 해방정국에 팽배했던 한반도의 역사·민속, 정치·이념, 사회·문화적 지점을 제주도의 생태학적 자연·지리·생활을 잘 융해시켜 구체적으로 그려낸다는 점도 지나쳐서는 안된다. 『화산도』는 격동기 해방정국의 정치이데올로기와 함께 제주도 특유의 역사성(몽고 침입, 일

12) <제주4·3사건>을 그려온 시인으로는 강덕환, 강승한, 고정국, 김경훈, 김관후, 김광렬, 김대현, 김명식, 김석교, 김수열, 김순남, 김용해, 김종원, 나기철, 문무병, 문충성, 양영길, 이산하, 임학수, 홍성운 등이 있고, 희곡가로는 강용준, 김경훈, 문무병, 장윤식, 장일홍, 하상길, 함세덕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그리고 평론가로는 김영화, 양영길, 김병택, 김동윤, 고명철, 김재용 등이 있다.

13) 김환기, 「재일4·3문학의 문학사적 위치와 의의」, 『日本學報』(제69집), 한국일본학회, pp.246~247.

14) 재일코리안 작가 김석범, 김창생, 김시종, 양석일, 원수일, 종추월, 현월 등은 제주도를 원향으로 삼고 있고 그들의 문학에는 다양한 형태로 제주도가 형상화 된다. 특히 김석범, 김태생, 김길호, 김중명, 정장 등의 <4·3사건> 관련 작품에는 “굴절된 조국의 근대사가 녹아 있고,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쫓고 쫓기던 민초들의 애환”과 “4·3사건으로 인한 혈육간의 이별과 만남, 이향의 슬픔과 고향에의 동경, 남북한 이데올로기, 민족적 정체성, 현실적인 벽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실로 독특하고도 다양한 재일의 목소리”가 그려진다.(김환기, 「재일4·3문학의 문학사적 위치와 의의」, pp.253~257. 참조)

제의 잔재, 유배지, 성곽, 관덕정, 관음사 등), 전통과 민속(유교정신, 산천단, 삼성혈, 친족회의, 이어도, 삼다도, 돌하루방, 제주방언, 토속신앙, 전통굿 등), 자연과 지리(한라산, 오름, 바다, 하천, 돌담, 바람, 까마귀, 감자, 메밀, 조 등), 일상생활(가옥구조, 예의범절, 유학, 오메기술, 새끼회, 자리돔, 젓갈, 해녀, 술집 등), 교통 통신(택시·버스, 배편, 밀항선, 밀수, 전화, 우편 등) 그 밖의 향토적 교육시설과 이웃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점들을 망라한 작품이다. 제주도의 구체적인 일상을 담고 있는 생태학적 문화지리는 『화산도』의 비평공간을 확장시킴과 동시에 문학적 보편성과 존재 가치를 담보하는 근간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화산도』는 격동기 해방정국의 친일파 청산, 미군정, 이승만 정권, 좌우익/남북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읽혀지고 평가되면서 생동감 있게 펼쳐지는 제주특유의 자연·역사·문화·생활에 대한 조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경직된 이데올로기 중심의 관념/대립적인 서사구도를 상징적인 영산(靈山-한라산)과 제주도의 생태학적 공간(장소)을 서로 맞물리게 함으로써 『화산도』의 서사구조는 생생한 현장성을 확보하기에 이른다.

거기에서 『화산도』는,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복원해내며 저항/고발문학의 성격을 띠는 점도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다. 일제강점기의 식민논리와 사고는 지역적 특수성을 왜곡/배제/변형시킴으로써 제국 중심의 지배구조를 강제해 왔다. 그 과정에서 경험해야 했던 모순/부조리는 재론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러한 강제된 형태의 왜곡/배제/변형의 역사·문화적 지점을 깊이 성찰하며 국가/민족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작업으로 확산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일제강점기와 해방정국, 한국전쟁을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진 민족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온전하게 복원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해방정국의 친일파 문제나 좌우익/남북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해석과 평가야말로 미래지향적인 세계를 열어갈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화산도』는 일차적으로 해방정국의 역사적 실체(친일파, <제주4·3사건> 등)에 대한 명확한 기억(복원)의 고발문학의 성격을 지닌 서사담론이자 동시에 치유의 문학으로 읽기에 충분하다.

또한 『화산도』는 동북아시아의 국가중심주의를 넘어 월경과 평화주의에 입각한 보편적 글쓰기를 실천한 세계문학의 가능성을 연 작품이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화산도』의 시간적 배경은 해방정국을 축으로 일제강점기를 과거형으로 수렴하면서도 남북한 정권이 수립되던 1948년과 49년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공간적 배경은 제주도(<제주4·3 사건>)를 중심으로 남한-북한-일본, 일본의 홋카이도-도쿄-교토-오사카-고베, 서울-대전-부산-광주-목포-제주, 육지-바다-섬으로 이어지는 육로와 바닷길을 아우른다. 내용상 정치·이념적으로 좌편향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 전체적인 서사구조는 해방정국의 제주도(<제주4·3 사건>)를 둘러싼 극단적인 민족주의, 좌우익/남북한 정치이데올로기, 친일파 청산 등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말하자면 작가의 고뇌는 해방정국에 휘몰아친 총제적인 갈등국면을 극복하며 통일조국으로 나아가야 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분단조국의 냉엄한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초점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화산도』는 일제강점기의 친일파와 남북한의 반민족적 행위를 함께 비판하면서 디아스포라 특유의 월경주의와 글로컬리즘을 통해 문학적 보편성을 확보한 드문 사례이다.

『화산도』는 한국/한국인/한국사회에 팽배한 전통적 민족순혈주의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교훈적인 문학텍스트이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서 “다른 인종과 국가 출신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는 데 앞장서라”고 권장했을 만큼 한국사회의 민족순혈주의는 뿌리가 깊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탈을 경험한 입장에서 보면 강한 민족순혈주의가 국민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왔고 앞으로도 부분적으로는 유효할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시대와 함께 전통의식과 민족 중심의 세계관보다는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혼종성’이 주목받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예컨대 ‘탈’민족과 글로컬리즘의 관점에서 구축했던 코리안 디아스포라, 즉 구소련권의 고려인, 중국의 조선족, 북·중남미대륙의 한인들, 그리고 재일코리안이 처한 문화혼종의 지점은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과 교훈을 제공받을 수 있는 텍스트이다. 특히 재일디아스포라의 ‘경계’ ‘혼종’지점은 한국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지만, 일본/일본인/일본사회의 국가/자기중심적 논리에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는 안티테제(Antithese)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화산도』는 재일코리안의 자기/민족적 정체성, 세계관의 변용, 실존적 고뇌 등 인간문제의 근원적인 명제까지도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정치이데올로기와 고도(孤島)의 정서를 내면적으로 소화하는 하녀 부엌이, 고네 할망, 부스럼영감, 목탁영감, 오남주의 어머니, 술집 여인들, 음식점 아주머니, 섬사람, 동네주민 등 다수 특정/불특정 민중들의 면면은 한 시대를 풍미하게 접하게 해주는 특별한 인물 창조의 의미를 제공한다. 거기에다 경계성을 살린 과거(일제강점기)와 현재(해방정국) 시제의 적절한 혼용, 공간과 인물에 따라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의 혼용, 중앙과 주변, 육지와 섬을 넘나드는 서사적 월경은 소설의 다채로운 맥락을 강화하는 장치들이다. 문학계에서는 이미 『화산도』를 “일본어문학의 금자탑”<sup>15)</sup>으로 극찬한 바 있고 문학적 보편성을 획득한 세계문학으로서 평가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2015년 11월 일본출판계를 대표하는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에서 『화산도』가 재출간되고, 대학원 석·박사학위 논문주제, 문예잡지의 문학비평까지 문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은 식지 않고 있다.

#### 4. 나오는 말

본고의 연구 목적은 한국문학/한국어문학계에 최초로 완역되어 소개된 『火山島』가 역사문화사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으며, 또 그 문학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재일디아스포라 작가 김석범에게 제주도(제주4·3사건)는 심상공간으로서의 고향이면서 <4·3>으로 표상되는 “한국현대사의 맹점, 맹점인 동시에 분단조국의 집중적인 모순”<sup>16)</sup>을 직시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15) 岡本厚(岩波書店社長)는 한국어판 『火山島』 간행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김석범의 『화산도』를 “일본어문학의 금자탑”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적(敵)의 언어이며 사용하는 자체가 굴욕적인” 일본어로 제주4·3사건을 집필한 것은 “일본의 전후문학뿐만 아니라 세계문학사에서도 유례없는 존재”라고 언급하였다.(岡本厚, 「축사」, 『재일디아스포라 문학의 글로벌리즘과 문화정치학-김석범 『화산도』-』,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2015. 참조)

16) 김석범, 「한국어판 『화산도』 출간에 즈음하여」, 『火山島1』, 보고서, 2015, p.5.

김석범의 대하소설 『화산도』는 고향인 제주도(제주4·3사건)에 횡행했던 해방정국의 모순/부조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그동안 『화산도』는 소설 제목과 사용언어, 발표 매체를 바꿔가면서 변신을 거듭하였고, 이번에 한국어판 『화산도』가 간행되기까지, 그야말로 간고한 디아스포라의 여정을 보여주었다. 필자는 이번 한국어판 『화산도』의 발간은 역사문화적으로도 그렇지만 문학사적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본다. 먼저 『火山島』가 한국현대문학사에서 격동기 해방정국을 형상화한 장편서사로서 한국현대문학사의 공백을 채워주는 텍스트라는 점, 정치·이념적으로 터부의 대상일 수 없고 우리들의 자화상이자 거울이라는 점, 제주문학의 꽃이며 <4·3문학>의 정점에 해당한다는 점을 거론하였다. 그리고 『화산도』가 해방정국에 팽배했던 한반도의 역사·민속, 정치·이념, 사회·문화적 지점을 제주도의 생태학적 자연·지리·생활을 잘 용해시켜 구체적으로 그려낸다는 점,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복원해내며 저항/고발문학의 성격을 띠는 점, 동북아시아의 국가중심주의를 넘어 월경과 평화주의에 입각한 보편적 글쓰기를 실천한 세계문학의 가능성을 연 작품이라는 점을 짚었다. 또한 『화산도』가 한국/한국인/한국사회에 팽배한 전통적 민족순혈주의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교훈적인 문학텍스트라는 점, 재일코리안의 자기/민족적 정체성, 세계관의 변용, 실존적 고뇌 등 인간문제의 근원적인 명제까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렇게 볼 때 김석범의 대하소설 『화산도』는 월경적(국가와 민족) 차원에서 디아스포라의 세계관, 보편성, 세계문학과 관련이 깊은 문학텍스트로서 좀더 넓은 형태(시각)의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김석범, 『火山島1-12』(김환기·김학동 옮김), 보고서, 2015.  
 김석범, 『火山島1』(김석희·이호철 옮김), 실천문학사, 1988.  
 金石範, 『言葉の呪縛』, 筑摩書房, 1972.  
 김환기, 「재일4·3문학의 문학사적 위치와 의의」, 『日本學報』(제69집), 한국일본학회, 2006.  
 나가무라 후쿠지, 『김석범 『화산도』 읽기』, 삼인, 2001.

황운현, 「遍歴과 回歸」, 『열대문화』(제7호), 열대문화 동인회, 1990.

## References

Kim Seok-beom, 『HWASANDO1-12』(Trans by Kim Hwan-gi · Kim Hak-dong), Bogosa,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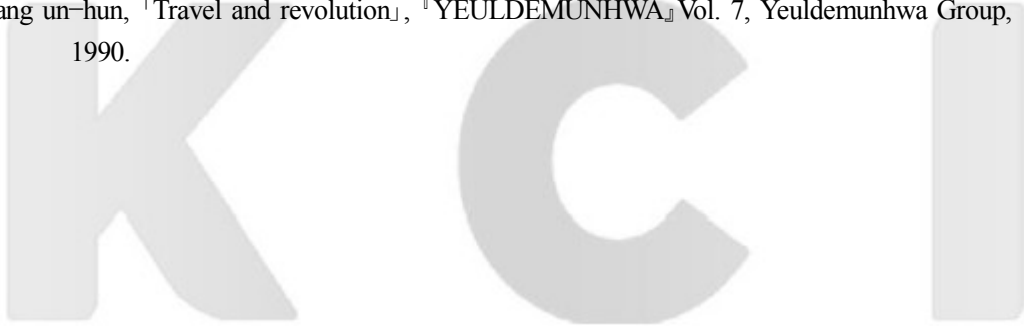
Kim Seok-beom, 『HWASANDO1』(Trans by Kim suk-hee · Lee Ho-chel), Silchen Literature Press, 1988.

Kim Seok-beom,, 『Spellbinding of language』, Chikuma Shobo, 1972.

Kim Hwan-gi, 「The literary Review of the Novel of Korean-Japanese writers about the Uprising」,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GY』Vol. 69, Korea Association of Japanology, 2006.

Fukuji Nakamura, 『Study on Kim Suk-bum 『HWASANDO』』, Samin, 2001.

Hwang un-hun, 「Travel and revolution」, 『YEULDEMUNHWA』Vol. 7, Yeuldemunhwa Group, 1990.





要旨

김석범 · 『화산도』 · <제주4·3>  
- 『화산도』의 역사적/문학사적 의미-

김환기(동국대)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판으로 출간된 김석범의 『火山島』가 역사문화사적/문학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화산도』는 제주도(제주4·3사건)에 횡행했던 해방정국의 모순/부조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필자는 이번 한국어판 『화산도』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火山島』가 한국현대문학사에서 격동기 해방정국을 형상화한 장편서사로서 한국현대문학사의 공백을 채워주는 텍스트라는 점, 정치·이념적으로 터부의 대상일 수 없고 우리들의 자화상이자 거울이라는 점, 제주문학의 꽃이며 <4·3문학>의 정점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리고 『화산도』가 해방정국에 팽배했던 한반도의 역사·민속, 정치·이념, 사회·문화적 지점을 제주도의 생태학적 자연·지리·생활을 잘 융해시켜 구체적으로 그려낸다는 점,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복원해내며 저항/고발문학의 성격을 띠는 점, 동북아시아의 국가중심주의를 넘어 월경과 평화주의에 입각한 보편적 글쓰기를 실천한 세계문학의 가능성을 연 작품이라는 사실도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화산도』가 한국/한국인/한국사회에 팽배한 전통적 민족순혈주의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교훈적인 문학텍스트라는 점, 재일코리안의 자기/민족적 정체성, 세계관의 변용, 실존적 고뇌 등 인간문제의 근원적인 명제까지도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김석범의 대하소설 『화산도』는 월경적(국가와 민족) 차원에서 디아스포라의 세계관, 보편성, 세계문학과 관련이 깊은 문학텍스트로서 좀더 넓은 형태의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주제어:** 김석범, 화산도, 해방정국, 제주도, 4·3문학, 세계문학, 문학사적 의미

ABSTRACT

**Kim Seok Beom · “Hwasando” · <Jeju 4.3>:**  
Historical/literary historical meaning of Hwasando

Kim, Hwan-Gi (Dongguk Univ.)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cultural historical and literary meaning of Hwasando published in Korean by Kim Seok Beom. As you can see, Hwasando is a work that describes rampant contradictions/absurdity during the political liberation of Jeju (Jeju 4.3). I think that “Hwasando”, published in Korean, should be recognized for following aspects. First, “Hwasando” is an epic that describes the turbulent liberation of Korea and fills the space of Korea Contemporary Arts history. It is also our self-portrait and mirror—not the subject of political or ideological taboo—and the blooming of Jeju Literature as well as the apex of 4.3 literature. “Hwasando” describes the history, folklore, politics, ideology, social and cultural points of the social, geographical and ecological nature of the Korean peninsula's history in detail. It has characteristics of resistance and exposé literature from a realistic point of view. It also should be noted that it is a work that opens the door to world literature based on borderlessness and pacifism in a universal writing beyond nationalism in Northeast Asia. In addition, “Hwasando” overcomes traditional pure-blood ethnicism that is widespread in Korea/Korean/Korean society and it is very didactic literature that ensures global competitiveness. It is also remarkable that it asks questions of the fundamental nature of human problems such as ethnic identity/transformation of worldview, and the existential anguish of the Korean Japanese. Therefore, “Hwasando” requires more broad spectrum research of the diasporas world view, universality, and literary texts that are deeply related to world literature in terms of borderlessness.

**Keywords:** Kim Seok Beom, Hwasando, political liberation, Jeju Island 4. 3 literature, world literature, literary historical meaning

접수일(2015.11.2.), 심사일(2015.11.10.), 게재확정일(2015.11.17)